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과 특징

이종숙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Corresponding Author : wenhua1@korea.kr

국문 초록

조선시대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각종 『의례』 등 공식 기록과 함께 각 개인이 남긴 문집이나 편지, 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유산이 있다. 그 가운데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개인 일기는 그 어떤 기록보다 솔직하고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기에 일찍부터 그 가치를 주목받아왔다.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과 같은 유명한 몇몇 일기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한 채 기록유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훼손·유실되고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작성 당시부터 좋은 품질의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 또한 작성자 사후(死後)에는 대부분 집안 후손에서 후손으로 전해지면서 보관되다보니 동시대에 제작된 실록, 의례와 같은 기록유산보다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역사적 환경이 있다. 또 간혹 보존 상태가 양호한 개인 일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정형화(整形化)된 활자본이 아니라 행·초서(行·草書)로 기록된 한문필사본(漢文筆寫本)이기 때문에 한글 전용 세대인 우리들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시대 관찬사료(官撰史料)의 방증사료(傍證史料)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대장금(大長今)> 과 같은 사극의 콘텐츠로 활용도가 커질수록 조선시대 개인 일기에 대한 연구와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내용 분류와 시기별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들 검토 내용이 향후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연구 방향과 보존·관리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선시대, 개인 일기, 보존·관리, 국보·보물, 가치

투고일자 2019. 09. 29 ● **심사일자** 2019. 10. 23 ● **게재확정일자** 2019. 11. 11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기록유산이 많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과 관청의 업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이 있기에 우리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의궤』, 『승정원일기』 등 기록은 사관(史官)의 기록으로 내용이 정제되어 있다. 좀 더 세세한 당시 상황을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문서나 개인의 기록까지 찾게 된다. 조선시대 개인의 기록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이다. 그 가운데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개인 일기는 그 어떤 기록보다 솔직하고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기에 일찍부터 그 가치를 주목받아왔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일들에서부터 국가 및 개인의 운명에 관한 일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일기의 저자들은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기를 썼고, 전쟁 중에서도 일기를 썼으며, 풍랑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헤매면서도 일기를 남겼다. 따라서 일기는 한 개인이나 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이처럼 일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각자의 관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¹

그런데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亂中日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 등과 같은 유명한 몇몇 일기를 제외하고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한 채 기록유산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훼손·

유실되고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실록』, 『의궤』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물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작성 당시부터 좋은 품질의 종이를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 또한 작성자 사후(死後)에는 대부분 집안 후손에서 후손으로 전해지면서 보관되다보니 대부분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또 간혹 보존 상태가 양호한 개인 일기를 접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정형화(整形化)된 활자본(活字本)이 아니라 행·초서(行·草書)로 기록된 한문필사본(漢文筆寫本)이기 때문에 한글 전용 세대인 우리들이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시대 관찬사료(官撰史料)의 방증사료(傍證史料)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대장금(大長今)>과 같은 사극(史劇)의 콘텐츠로 활용도가 커질수록 조선시대 개인 일기에 대한 연구와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내용 분류와 시기별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 분석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역사학이나 국어국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의해 일부 일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²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일기류 자료를 연차적으로 간행하고³ 한 국학중앙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기획 논문을 편집⁴하면서

1 정하영, 1996,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5~43.

2 국내 학술지를 통해 개별적 일기와 관련된 연구 300여편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절반 이상이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사료 총서 간행 작업의 일환으로 1986년 尹致昊日記를 속간하기 시작한 이후 30여건의 새로운 일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간행하고 있다(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pp.763~797).

4 1996년 『정신문화연구』 제65호로 기획된 「조선조 일기류 자료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대표적이다.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중 대표적인 성과를 시간 순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정구복은 조선시대 일기의 '자료적 성격'을 연구한 논문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을 발표하면서 연구자들을 위하여 일기 자료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이 일람표에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일기류 119종, 문집에 실린 일기류 113종,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한 미발간 일기 13종,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수집한 미발간 일기 43종이 수록되어 있다.⁵

1997년 염정섭은 일기류의 종합적인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논문에서 주요 도서관의 일기류 소장 현황을 발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기류 154종, 규장각 소장 일기류 485종, 장서각 소장 일기류 162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일기류 306종을 제시하였다.⁶

정구복과 염정섭의 연구는 일기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최초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조사 대상 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 일기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2007년 황위주⁷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연계된 도서관 27곳, 개별적 조사 도서관 6곳, 한국 문집 총간과 전국 대학 도서관 연구 논저 목록 등을 조사하여 일기류 자료 1,600여종을 확인⁸하고 이 가운데 개인이 작성한 일기는 806건⁹이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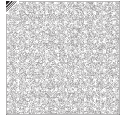
그리고 최근 5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향후 문화

재 지정·등록을 고려하여 단독 책자 형태의 개인 일기 현황을 조사하였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지역별로 나누고 소장처별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다. 소장처와 공동으로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 일기 자체의 상태를 촬영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¹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까지 포함하여 현재 전국에 현존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개인 일기는 129곳에 1,430건으로 집계된다.

표 1 전국 소재 조선시대 개인 일기 소장처별 현황

지역명(건수)	소장처명(건수)
서울·인천·경기(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204), 국립중앙도서관(153), 연세대학교(113),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95), 국사편찬위원회(83), 고려대학교(82), 성균관대학교(61), 국립민속박물관(34), 서울역사박물관(29), 동국대학교(20), 숭실대학교박물관(15),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13), 만해기념관(11), 서강대학교(10), 국회도서관(9), 한국은행(규장각)(8), 단국대학교퇴계기념도서관(6), 이화여자대학교(5), 중앙대학교(5), 경기도박물관(4), 숙명여자대학교(4), 송실대학교도서관(4), 국립중앙박물관(3), 경희대학교(2), 국립한글박물관(2), 수원화성박물관(2), 의왕향토사료관(2), 가천박물관(1), 강화역사박물관(1), 광명시중앙도서관(1), 국립고궁박물관(1), 국민대학교(1), 전쟁기념관(1), 개인 소장(8곳 8건)
충청·강원(22)	모덕사(23), 단국대학교울곡기념도서관(14), 충남대학교(10), 문충사(충남대)(7), 대전시립박물관(1), 무릉박물관(1), 속초시립박물관(1), 충남역사문화연구원(1), 충주박물관(1), 칠백의총관리소(1), 개인 소장(11곳 15건), 독립기념관(1), 국립청주박물관(1)
전라·제주(21)	전남대학교(13), 국립제주박물관(4), 전북대학교(2), 필암서원(2), 규남박물관(1), 순천대학교박물관(1), 운주유물전시관(1), 전남대학교박물관(1), 정읍시립박물관(1), 추사유물전시관(1), 개인 소장(11곳 14건)
경상·대구·부산(45)	한국국학진흥원(117), 계명대학교(52), 영남대학교(31), 부산대학교(18), 국립해양박물관(12), 경북대학교(11), 경상대학교(10), 소수박물관(6), 상주박물관(5), 총재박물관(4), 부산시립박물관(3), 거창박물관(1), 고성박물관(1), 동아대학교구덕캠퍼스(1), 용원서원(1), 울산박물관(1), 토지주택박물관(1), 함양군청(함양박물관)(1), 항일의병기념관(1), 개인 소장(26곳 41건)

5 정구복, 1996,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p.14~24.
 6 염정섭, 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제24집, 한국역사연구회, pp.237~263.
 7 한국국학진흥원이 수행했던 '조선시대 일기·일기류 조사 용역'의 책임연구자였음.
 8 황위주, 2007, 앞의 글.
 9 최은주는 황위주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일기의 수량을 937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최은주, 2009,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학회, pp.5~40).
 10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5년 계획으로 '조선시대 개인일기 학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사업 종료와 함께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하려고 한다.



Ⅲ.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 분류

앞 장의 조사 분석이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연구라면, 본 장은 조선시대 개인 일기 각각의 개별 자료에 대한 연구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내용 연구를 위해 혹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주제·유형별 분류가 선행 요소이다. 먼저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분류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부터 알아보기로 하겠다.

정구복은 쓰여진 글에 따라 한문일기와 국문일기로 나누고, 또 쓰여진 기간이나 대상에 따라 생활일기와 특수일기로 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¹¹

정하영은 소재에 따라 여행일기, 전란일기, 궁중일기로 나누었고, 염정섭은 저자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생활일기, 사환일기, 사행일기, 전란일기, 관청일기, 여행일기, 사건일기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¹²

2007년 황위주는 사환일기, 기행일기, 사행일기, 전쟁일기, 사건건문일기, 유배일기, 강학·독서일기, 고종·문상일기, 종합생활일기, 기타일기 등 가장 상세하게 주제별 분류를 하였고,¹³ 최은주는 고종상장례일기, 독서강학일기, 사건건문일기, 전쟁일기, 사행일기, 기행일기, 유배일기, 사환일기, 종합생활일기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⁴ 황위주와 최은주의 분류는 대동소이하다.

2011년 한지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일기로 대상을 한정하여 기타사건일기, 전란일기, 일상일기, 관직일기, 기행일기로 분류한 바 있다.¹⁵

2019년 심경호는 기록 소재에 초점을 두어 국내편력일기, 이역기행일기·표해록·피로일기, 자서일기, 유배

일기, 사건일기, 진중일기, 장정일기, 사환일기, 경연관일기, 간역일기·상소일기, 천주교순교일기 등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¹⁶ 허경진은 여행일기, 사직일기, 유배일기, 사건일기, 전쟁일기, 학업일기, 의례일기, 생활일기로 분류한 바 있다.¹⁷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연구자들의 분류도 다양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연구자는 상세하게 나누었고, 어떤 연구자는 크게 묶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소재(素材)에 따른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공력을 참고하여 다섯 가지 광의적 주제를 설정하고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 분류는 학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사환(仕宦)일기이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를 작성한 주체는 사대부, 양반, 관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일기이지만 관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일화와 그에 대한 생각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환일기는 중앙과 지방 관직 업무뿐만 아니라 관직에서 파면되고 유배 가서 작성한 일기, 상소와 관련된 내용도 사환일기에 귀속시켰다.

둘째, 사행(使行)일기이다. 사행일기는 일기를 작성하는 주체가 국가의 공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료라는 점에서 사환일기와 유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여행 일정과 견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기행일기와 유사하지만, 외교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보이는 개인 일기 유형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면 연구 자료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행(紀行)일기이다. 사행일기에 기록되어 있

11 정구복, 1996, 앞의 글.

12 정하영, 1996, 앞의 글.

13 황위주, 2007, 앞의 글.

14 최은주, 2009, 앞의 글.

15 한지희, 20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기류의 현황과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3』, 국립중앙도서관, pp.289~302.

16 심경호, 2019,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pp.72~110.

17 허경진, 2019,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의 토론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pp.160~165.

는 지명이 국외라면 기행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은 국내로 금강산(金剛山), 소양강(昭陽江) 등 산수를 여행한 유산기(遊山記) 형태와 특정 지방을 유람한 답사기(踏查記) 형태가 있다. 조선시대의 여행 문화를 뽑아낼 수도 있고 지역의 명승고적 등을 시대별로 연계해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쟁(戰爭)일기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뿐만 아니라 이인좌란(李麟佐亂), 홍경래란(洪景來亂), 의병활동(義兵活動), 포로생활(捕虜生活) 등에 대한 기록과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 일기들이다.

다섯째, 생활(生活)일기이다. 특정한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이런저런 생활상이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로 사환, 사행, 기행, 전쟁일기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개인 일기를 생활일기로 분류하였다.

주로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섯 가지로 분류는 했지만,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 분류는 학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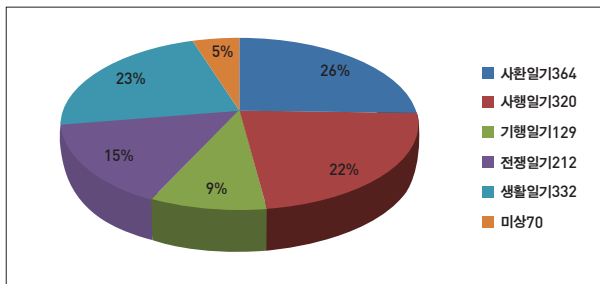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소재 조선시대 개인일기 유형별 현황.

IV.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시기별 특징

조선시대 개인 일기를 작성 연대별로 분류하면 <그림 2>에서 보듯이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7

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증가하고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후 20세기 이후 점점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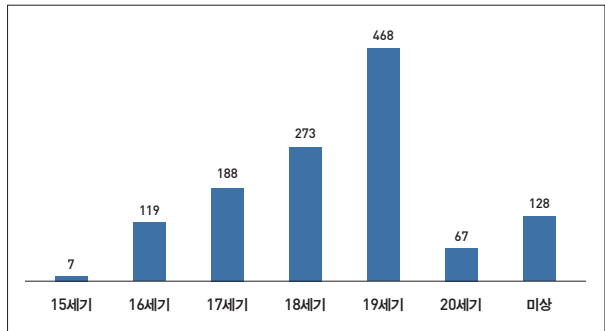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소재 조선시대 개인일기 시기별 현황.

1. 15~16세기

15세기에 작성되어 현전하고 있는 개인 일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정록(北征錄)』등 7건으로 분류되었다. 작성 연대는 오래되었지만 모두 전사(傳寫)된 이본(異本)이며 『표해록(漂海錄)』은 활자본도 전해지고 있다. 『북정록』에는 신숙주가 여진족을 공격하여 대첩을 거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표해록』에는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제주에서 고향인 나주로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16일간 바다에 표류하다가 중국 저장성 Ning보부에 표착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¹⁸ 두 편 모두 ‘녹(錄)’이란 제목 아래 일기 형식¹⁹을 취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15세기 개인 일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부터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양도 증가되고 내용도 다양해진다.²⁰ 이렇게 16세기 이후 개인 일기가 보편화되는 것은 역사 기록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문자 기록을 남기는 문인 계층이 관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재야에서 독서하는 선비도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 계층도 있으며 부녀자도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

18 주목되는 부분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풍물을 관찰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고, 운하를 통한 물자 운송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쓰여 있다.

19 ‘녹(錄)’ 종류의 일기는 외면적인 사건 전개를 묘사하는 데 충실하다.

20 16세기에 작성된 개인 일기는 119건으로 사환일기 38건, 전쟁일기 30건, 사행일기 27건, 생활일기 18건, 기행일기 5건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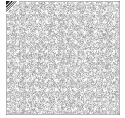


표 2 15세기 작성된 개인 일기 현황

일기 명칭	저자	작성 연대	표제/내제	수량(책/장)	크기(cm)	소장처
북정록 北征錄	신숙주申叔舟(1417~1475) 이극감李克堪(1427~1465)	1461 (세조7)	北征錄 / 北征錄	1/50	27.0 × 19.5cm	국립중앙도서관
최금남표해록 崔錦南漂海錄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崔錦南漂海錄 / 錦南先生漂海錄	1/49	27.0 × 19.5cm	국사편찬위원회
금남선생표해록 錦南先生漂海錄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漂海錄 / 錦南先生漂海錄	1/38	25.5 × 14.6cm	연세대학교
최금남표[해]록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錦南漂海錄 / 최금남표해록	1/54	36.5 × 19.1cm	서강대학교
표해록 漂海錄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漂海錄 / 漂海錄	1/60	28.5 × 18.5cm	서강대학교
최금남표해록 崔錦南漂海錄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없음 / 崔錦南漂海錄	1/47	24.2 × 21.6cm	소수박물관
표해록 漂海錄	최부崔溥(1454~1504)	1488 (성종19)	漂海錄 / 漂海錄	1/108	23.6 × 28.0cm	국립해양박물관

표 3 국보·보물 개인 일기 현황 (16세기)

연번	서명	저자	작성 연대	수량(책)	지정 현황	소장처
1	권벌총재일기 權撥冲齋日記	권벌權撥 (1478~1548)	1508~1518 (중종3~13)	6	보물 제261호 (1963.1.21.지정)	개인
2	춘양일기 春陽日記	권벌權撥 (1478~1548)	1533~1534 (중종28~29)	1	보물 제896호 권벌 증가 전적 중 1점(1986.11.29.지정)	개인
3	총재일기 冲齋日記	권벌權撥 (1478~1548)	1514~1515 (중종9~10)	1	보물 제896호 권벌 증가 전적 중 1점(1986.11.29.지정)	개인
4	관서추정일기 關西趨庭日記	이전인李全仁 (1516~1568)	1549~1553 (명종4~8)	2	보물 제524-2호 여주이씨 옥산 문중 전적 중 1점(2006.07.18.지정)	개인
5	학봉일기초 鶴峯日記草	김성일金誠一 (1538~1593)	1570~1573 (선조3~6)	35	보물 제905호 김성일 증가 전적 중 1점(1987.03.07.지정)	개인
6	조천일기 朝天日記	김성일金誠一 (1538~1593)	1577 (선조10)	1	보물 제905호 김성일 증가 전적 중 1점(1987.03.07.지정)	개인
7	기묘일기부북정일기 己卯日記附北征日記	김성일金誠一 (1538~1593)	1579 (선조12)	1	보물 제905호 김성일 증가 전적 중 1점(1987.03.07.지정)	개인
8	조천일기 朝天日記	조헌趙憲 (1544~1592)	1574~1575 (선조7~8)	1	보물 제1007호 조헌 관련 유품 중 1점(1989.08.01.지정)	국가
9	권문해 초간일기 權文海 草澗日記	권문해權文海 (1534~1591)	1580~1595 (선조13~28)	3	보물 제879호 (1986.10.15.지정)	개인
10	오희문쇄미록 吳希文瑣尾錄	오희문吳希文 (1539~1613)	1591~1601 (선조24~34)	7	보물 제1096호 (1991.09.30.지정)	개인
11	남행록 南行錄	조정趙靖 (1555~1636)	1592 (선조25)	1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 중 1점(1989.05.28.지정)	상주 (공유)
12	임진일기 壬辰日記	조정趙靖 (1555~1636)	1592 (선조25)	2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 중 1점(1989.05.28.지정)	상주 (공유)
13	진사록 辰巳錄	조정趙靖 (1555~1636)	1592~1597 (선조25~30)	1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 중 1점(1989.05.28.지정)	상주 (공유)
14	일기부잡록 日記附雜錄	조정趙靖 (1555~1636)	1593~1594 (선조26~27)	1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 중 1점(1989.05.28.지정)	상주 (공유)
15	서행일기 西行日記	조정趙靖 (1555~1636)	1597 (선조30)	1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 기록 일괄 중 1점(1989.05.28.지정)	상주 (공유)

연번	서명	저자	작성 연대	수량(책)	지정 현황	소장처
16	용사일기 龍蛇日記	정탁鄭琢 (1526~1605)	1592~1593 (선조25~26)	2	보물 제494호 정탁문적·약포유고 및 고문서 중 1점(1968.12.19.지정)	개인
17	난중일기 亂中日記	이순신李舜臣 (1545~1598)	1592~1598 (선조25~31)	7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중 1점(1962.12.20.지정)	개인
18	징비록 懲毖錄	류성룡柳成龍 (1542~1607)	1592~1598 (선조25~31)	1	국보 제132호 (1969.11.12.지정)	개인
19	이탁영정만록 李擢英征蠻錄	이탁영李擢英 (1541~1610)	1592~1598 (선조25~31)	2	보물 제880호 (1986.10.15.지정)	개인
20	김용 호종일기 金涌 扈從日記	김용金涌 (1557~1620)	1593~1594 (선조26~27)	3	보물 제484호 (1968.12.19.지정)	개인
21	미암일기 眉巖日記	유희춘柳希春 (1513~1577)	1567~1576 (명종22~선조9)	11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 중 1점(1963.01.21.지정)	개인
22	노인 금계일기 魯認 錦溪日記	노인魯認 (1566~1623)	1599 (선조32)	1	보물 제311호 (1963.01.21.지정)	개인

암일기(眉巖日記)』,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亂中日記)』가 관료들의 일기라면, 재야인의 일기로는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瑣尾錄)』 등을 들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16세기부터 개인 일기의 작성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점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개인 일기 28건 중 22건이 모두 이 시기에 작성된 일기라는 점이다. 또한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천사일로일기(天使一路日記)』 등 9건은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기의 개인 일기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세상에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탁연(尹卓然, 1538~1594)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북해쇄설록(北海洒雪錄)』, 정상(鄭象義, 1555~1600)의 『임진일기(壬辰日記)』, 이헌국(李憲國, 1525~1602)의 『함평이대사간임진호종일기(咸平李大司諫壬辰扈從日記)』는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북해쇄설록』은 1592년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10여일간의 개인 일기로 1책 26장으로 짧지만 ‘북쪽 바닷가에서 눈비를 맞으며 고생한 기록’이라는 표제와 달리 유려한 필체인 행서가 인상적이며, 임란 초기 함경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2. 17~18세기

이 시기에 작성된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특징은 작성 기간이 긴 일기가 많다는 점이다. 작성 기간이 긴 일기가 많아진 것은 서당을 통한 교육 보급이 확대되고 시헌력(時憲曆), 책력(冊曆) 등의 대중화와 맞물린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안사족(禮安士族) 김광계(金光繼, 1580~1646)가 43년간의 일상을 기록한 『매원일기(梅園日記)』, 조선 중기의 문신 김령(金鈴, 1577~1641)이 40여년간의 관직 및 은거 생활을 친필로 기록한 『계암일록(溪巖日錄)』, 조선 중기의 학자 손처눌(孫處訥, 1553~1634)이 임진왜란 직후부터 30년간 기록한 『모당일기(慕堂日記)』, 영남 퇴계학파의 대표적인 문인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58년 동안의 관직 및 개인 생활, 자작 한시 164수, 산문 13편을 수록한 『청대일기(淸臺日記)』, 경남 고성에 사는 농부 구상덕(具尙德, 1706~1761)이 20세부터 37년간 쓴 생활일기 『승충명록(勝聰明錄)』, 조선 후기 문신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 51년간 자신의 삶을 기록한 『백불암역중일기(百弗庵曆中日記)』, 조선 후기 학자 황윤석(黃胤

21 정구복, 1996,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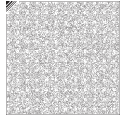


표 4 분량이 많은 시도 유형문화재 현황(17~18세기)

연번	서명	저자	작성 연대	서체	수량	장수	주제	지정 현황
1	계암일록 溪巖日錄	김령金垞 (1577~1641)	1603~1641 (선조36~인조19)	행초	8	496	사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0호 설월당 종택 소장 전적 및 고문서 중 1점 (2000.12.04.지정)
2	승총명록 ²² 勝聰明錄	구상덕具尙德 (1706~1761)	1725~1761 (영조1~37)	행초	5	376	생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3호 (2006.04.06.지정)
3	백불암역중일기 ²³ 百佛庵曆中日記	최흥원崔興遠 (1705~1786)	1735~1785 (영조11~정조10)	해서	4	535	생활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1호 웃골 경주최씨 백불암 종가 소장 전적 중 1점 (2003.04.30.지정)
4	이재난고 ²⁴ 頤齋亂藁	황윤석黃胤錫 (1729~1791)	1738~1791 (영조14~정조15)	초서	50	6000	생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 (1984.09.20.지정)
5	노상추일기 盧尙樞日記	노상추盧尙樞 (1746~1829)	1763~1829 (영조 39~순조 29)	해서	50	2685	생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2019.09.05.)

錫, 1729~1791)이 10세부터 63세로 별세하기 2일 전까지 쓴 일기이면서 문집 초고인 『이재난고(頤齋亂藁)』, 조선 후기 무관인 노상추(盧尙樞, 1746~1829)가 67년간 쓴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등은 작성 기간이 긴 만큼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관련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평가되어 각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기의 개인 일기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기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복휴(金復休, 1724~?)의 『기백재일기(己百齋日記)』, 이만운(李萬運, 1685~?)의 『무신삼월창의일기(戊申三月倡義日記)』, 우하형(禹夏亨, 미상)의 『무신도적일기(戊申討賊日記)』, 윤황(尹煌, 1571~1639)의 『수행유적(繡行遺跡)』 등이다.²⁵

3. 19~20세기

1,400여건의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3분의 1이 이 시기에 작성된 일기이다. 이 시기에 작성된 개인 일기의 특징은 현재 서울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일기가 많다는 점이다. 500여건 중 285건이 서울 지역에 소장되어 있고, 이들의 내용은 경화사족(京華士族)²⁶들이 기록한 사환일기와 사행일기가 대부분이다. 성균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완영일록(完營日錄)』은 경화사족 집안에서 태어난 서유구(徐有楨, 1764~1845)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로 재직 중인 1년 8개월간의 일상과 공무를 기록한 사환일기이고,²⁷ 연세대학교 소장 『경산일록(經山日錄)』도 영의정을 여섯 번이나 지낸 경화사족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일기이다.²⁸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기에 작성된 개인 일기 중에

22 당시 농업 실태와 물가 상황, 과거 준비와 응시, 향교 관련 사항, 지방행정과 관련된 송사 등 생활사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3 처음에는 책력 위의 날짜에 따라 기록했으나 후대 어느 때인가 재정리되어 정서된 것으로 보인다.

24 문학(文學), 경학(經學), 예학(禮學), 사학(史學), 산학(算學), 병형(兵刑), 종교(宗教), 도학(道學),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상(易象), 언어학(言語學), 전적(典籍), 예술(藝術), 의학(醫學), 음양(陰陽), 풍수(風水), 성씨(姓氏), 물산(物産) 등 정치, 경제, 사회, 농·공·상 등 인류 생활에 이용되는 실사(實事)들이 망라되어 있다.

25 『조선시대 개인일기 3』(2017), 『조선시대 개인일기 4』(2018) 에 수록되어 있음.

26 이 시기 서울 지역은 봉당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도입된 탕평책이 '세도정치'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들 세도가들은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세습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훈맹과 학연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갔는데, 그 결과 '경화사족'이라는 새로운 지배 집단이 서울의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27 전라도 지방의 통치와 운영 등 관련 공무 사항과 개인적인 일상, 특히 서유구가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구황작물인 고구마 재배를 최초로 시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등 그 당시 전라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기임.

28 『경산일록』은 정원용이 1802년부터 1873년 세상을 뜨기 며칠 전까지 약 71년간 기록한 일기로, 조정과 개인의 대소사가 담겨 있다.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실록에는 소략하게 기록되었지만 『경산일록』에는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 방증 사료로 가치가 크며, 정원용 말년에는 서리를 시켜 정서하였기 때문에 글씨가 바르고 오자도 많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는 유일본(惟一本)으로 추정되는 일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소장처에서 제공받은 서지 정보들을 분석해보면 1,400여건의 일기 중 유일본의 전체 수량인 125건(추정되는 것까지 포함) 중 62건이 이 시기에 작성된 일기이다. 이 중 5건은 이미 사·도 유형문화재이다.

표 5 19세기 개인 일기의 사·도 유형문화재 지정 현황

연번	서명	저자	작성 연대	주제	지정 현황
1	단계선생일기 ²⁹ 端溪先生日記	김인섭金麟燮 (1827~1903)	1850 ~1903	생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7호 (1982.08.02.지정)
2	동행일록 東行日錄	민건호閔建鎬 (1843~1920)	1881	사행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87호 민건호 필사본 일괄 중 1점 (1972.06.26.지정)
3	해은일록 海隱日錄	민건호閔建鎬 (1843~1920)	1883 ~1914	사환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87호 민건호 필사본 일괄 중 1점 (1972.06.26.지정)
4	상경일기 ³⁰ 上京日記	박기중朴琪淙 (1839~1907)	1898 ~1899	기행	부산광역시 유 형문화재 제125호 박기중 유물 일괄 중 1점 (2013.05.08.지정)
5	심원권일기 ³¹ 沈遠權日記	심원권沈遠權 (1850~1933)	1870 ~1933	생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42호 (2018.12.20.지정)

V. 맺음말

각종 양상으로 흩어져 있는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소재를 파악하고 실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며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는 등 이 모든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개인 일기를 보다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 분석에서 기존 조사보다 조사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고 지역별·소장처별 소장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현황 분석에서 보존 상태나 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싶었으나 분석을 하다보면 상태가 양호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시설이나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언급은 향후 적절한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또한 학술정보의 DB 구축과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된 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 등 기록유산 전문연구기관들은 보관하고 있는 일기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현황을 분석하여 각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플랫폼 구축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 싶었으나 기관별 동의 등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시도 또한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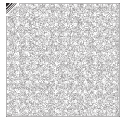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내용 분류와 시기별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이지만 검토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일기의 시대사조(時代思潮)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16세기부터 개인 일기의 수량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16세기 이후 개인 일기가 보편화된 것은 기록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유롭게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계층이 관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확장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지방 문인들까지 경제적 기반과 교육 문화 활동을 개척한 시기로, 실제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이 전제되고 스스로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식이 개인 일기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17, 18세기에는 개인 일기의 수량이 더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일기의 분량도 많아졌다. 무엇이든 상세하게 기록하려는

29 김인섭이 23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53년 동안 쓴 일기로, 모두 29책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의 대결, 열강의 침탈, 일제의 식민지 정책 등이 기록되어 있다.

30 개항기 부산 출신의 사업가이자 관료인 박기중이 1898~1899년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쓴 일기로, 개인사, 가족사는 물론 부산 근대사,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31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울산에 살았던 심원권의 일기로, 그 시기 양반 출신이면서 농업에 종사했던 울산 사람의 일상을 살필 수 있다. 일기에 수록된 당시의 쌀 값을 비롯한 각종 물품의 가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현상이 개인 일기에도 표현된 것이다. 19세기에 작성된 개인 일기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독특한 내용의 개인 일기와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이 현재 전하고 있다.

둘째, 국보·보물로 지정된 개인 일기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국보 2건, 보물 26건으로 총 28건이다. 단독으로 지정된 일기는 10건뿐이고, 나머지는 ‘기록 일괄’ 혹은 ‘문중 전적’에 포함되어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62년 지정 제도가 시행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는데,³² 이유가 어떠한 간에 지난 50년간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지정·관리 실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셋째,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지정 수량이 적고 ‘문중 전적’이나 ‘기록 일괄’ 중 한 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다른 전적류 문화재의 가치 기준에 의해 조선시대 개인 일기가 평가되었을 수 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는 제작 연대의 역사성, 현존(現存)의 희소성, 원형(原形)의 완전성(完全性) 등의 가치 이외에 저자의 역사적 위상 또는 내용의 진정성(眞情性)·특이성 등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기록유산이다. 『난중일기』와 『정비록』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이순신(李舜臣, 1545~1598)과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역사적 위상이 일기의 가치를 높인 요인이 되었고, 개인이 기록한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의 가치는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했다는 내용의 진정성이 가치화된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국보·보물

로 지정된 28건의 일기 중 22건이 16세기에 작성된 일기 때문에 작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일기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작성된 일기도 보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³³ 무엇이 가치화되느냐에 따라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가치는 재생산될 수 있다.

개인 일기가 어떤 모습과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가치와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된다면 1,400여건의 일기를 보존·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기 자체가 손 안에 없다는 일정한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 그렇지만 제각각인 개인 일기의 정보를 목록화하고 묻혀 있던 일기의 특징을 끌어내어 가치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미흡하지만 본 검토 내용이 향후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연구 방향과 보존·관리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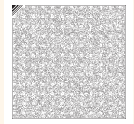
32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亂中日記)』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로는 처음 지정된 사례이다.

33 1989년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 중 ‘저삼일월’가 이에 속한다. 이 일기는 함양박씨 6대에 걸쳐 약 140년간(1834~1974)의 기록으로 특이성이 가치화된 사례이다.

* 본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이 주관한 ‘조선시대 개인 일기 학술 심포지엄’에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 심경호, 2019,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pp.72~110
- 염정섭, 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현실』 제24집, 한국역사연구회, pp.237~263
- 정구복, 1996,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pp.14~24
- 정하영, 1996,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헌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25~43
- 최은주, 2009,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제34집, 대동한문학회, pp.5~40
- 한지희, 20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기류의 현황과 성격」 『국립중앙도서관 선본 해제 13』, 국립중앙도서관, pp.289~302
- 허경진, 2019,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의 토론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pp.160~165
- 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pp.763~797



A Study on Personal Diaries in the Joseon Period

Jong-suk Lee Researcher, Artistic Heritage Research Divisio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wenhua1@korea.kr

Abstract

The Joseon Dynasty (1392-1910) left behind a wealth of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personal letters, and journals, as well as public documents such as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Joseon Wangjo Sillok),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and State Protocols (Uigwe). Such heritage also includes personal diaries that have been highly regarded for their frank and vivid records of people's lives in the Joseon period.

There have been great diaries published and intended for reading by the Korean public, including War Diaries (Nanjung Ilgi, 1592~1598) by Yi Sun-sin and Diaries of Jehol (Yeolha Ilgi, 1780) by Park Ji-won. Unfortunately, a great majority of these personal records remain unknown to the world. Such great records have not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be documented properly, but are left outside public attention, abandoned to be damaged and destroyed.

Few personal diaries of the Joseon period were written on good-quality paper. After the death of their authors, these diaries were left to be kept by their descendants; this explains why many of these records have been in poor condition, particularly when compared with the public record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Joseon, such as Sillok and Uigwe, even when these were lucky enough to be taken care of by the authors' descendants. Even after surviving a long time, many of these personal records remain in the form of manuscripts, written in semi-cursive and cursive scripts of Chinese characters, thus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for the people of the current generation -- most of whom have not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learn Chinese characters at school -- to take care of their documentary heritage properly.

Meanwhile, it is also true that, as the value of the public record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Joseon as historical materials has grown, they are used more often as content for TV dramas such as Daejanggeum. At the same time,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louder voices citing the need for the stud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rsonal diaries from Joseon.

Considering the situation, this study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f the personal diaries of Joseon as recently survey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subjects, and background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rsonal diaries of Joseon.

Keywords Joseon Period, Personal Diar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National Treasure, Treasure, Value

Received 2019. 09. 29 • Revised 2019. 10. 23 • Accepted 2019. 11. 11